

김정은각하의 령도가 있어 조선은 언제나 승리한다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조선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단 한번의 로선상각오도 없이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해왔다.》(수리아 디마스 크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조선인민은 세계를 놀라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련이어 이룩하고있다.》(메히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인수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청송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발전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로 사업하고 계신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은 단 한번의 로선상각오도 없이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해왔다.》(수리아 디마스 크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조선인민은 세계를 놀라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련이어 이룩하고있다.》(메히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인수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청송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김정은위원장에서 계시기에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격찬의 목소리를 터쳤다.

이들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자력부강의 진로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현실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만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국력이 강하고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자주적이며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웠다.

김정은위원장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

며 자력강생을 번영의 보금으로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서기장은 김정은각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그이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길에서 경이적인 사면들이 이루어졌다고 찬양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선혁명을 승리로 전진시켜나간다고, 그이를 모시어 조선은 모든 분야에 걸쳐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할것이라고 케바는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는 강조하

였다.

벨라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소 책임자와 서기장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머지않은 앞날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조진인민과의면대세명조선통일지지아람위원회 위원장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창 신주지부에서 사업하고 하면서 조선이 언제나 승리를 떨치며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이룩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문제의 주인은 전체 조선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없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통괄당하게 된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 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 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남의 나라와 민족을 회색시켜 저들의 리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외세는 오늘날도 북남사이에 대결을 부추기면서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꾀하고있다.

전국적범위에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외세의 울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외세에 의해 분열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게 정치적중정의 제물로 내맡길수 없다.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매일수목 민족의 목표인 학교를 사랑하며 민족교육을 지고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 한류하겠다.》

본사기자

얼마전 6.15안산분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9월평양공동선언에서(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해결한다.)고 밝힌 민족자주정신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 6.15대전분부도 《민족자주의는 민족대단결 즉 외세와의 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 《나라와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민족자주적립장과 태도를 요구한다.》며 《분단적분배체제과 내외의 전쟁책동세력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한) 반도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세기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렇듯 민족자주의를 실현하는것은 오늘 남녘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이다.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나라의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이룩한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외세의존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자주의를 실현하는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든든히 틀어쥐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전영민

민족자주의는 겨레의 지향

이역에서 동포사랑을 꽃피우며

—총련 신주구동포노래자랑모임 진행—

얼마전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산하 도교제9조급에서 첫 동포노래자랑모임이 열렸다.

신주구에서 사는 동포들이 모여 진행한 이번 노래자랑모임은 지역사랑, 동포사랑, 학교사랑의 정신을 확고하고 단체를 물론하고 힘을 합쳐 지역동포사회를 발전시켜나갈것의들을 표명하는 마당이 되었다.

강당에 모여온 동포들 약 100명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노래자랑모임은 지난해에 신주구청상회와 조청이 주최하여 처음으로 진행된 동포운동회에 이어 학교를 개최장으로 정하였다.

총련 신주구지부 김일현위원장은 앞으로 지부활성화와 더불어 학생인민사업에 전력을 집중하려면 학교를 동포들이

모이는 마당으로 꾸려야 한다는 총련지부의 호소에 청상회와 조청이 적극 호응하면서 노래자랑모임이 실현되었다고 말하였다.

김일현위원장은 《최근년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지역활성화가 촉진되고있다. 이제까지 도교제9조급이 스기나미구에 소재하고있었던것과도 판연되어 신주구동포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기회가 많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운동회의 성공을 계기로 동포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모임을 계기로 분회와 지부의 역할을 한층 높여 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해나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동포들의 의식변화는 이제까지 지부를 찾아오는 기회가 많지 못했다. 오랜 기간 못 찾아온 동포고령자들이 행사성공을 위하여 한류하겠다고 달려온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다까다노바분회의 고찬평로인(76살)은 출연자로서 노래자랑모임무대에 올라 《그네부는 처녀》를 불러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노래자랑모임을 한다고 하니 참가를 결심했다.》고 하면서 《총련사업과 조국통일사업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

는 심정으로 참가했다. 앞으로 우리 지부가 애국애족운동의 앞장에 서리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실행위원들에 의하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신주구의 모든 단체들의 단결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한다.

후방사업은 맡은 조청 신주구지부 일교대책임자 강유나청년(27살)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두번의 동포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모든 세대가 함께 지부활동을 밀고나가자는 기분이 확립되었다. 이 기간 실행위원회에서는 동포들이 참가하고싶어하는 동포행사로 꾸리기 위해 토론을

거둬하였으며 조청원들도 비전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출연자선정, 식장꾸리기, 동포방문 등 준비를 다그쳤다.》고 말하였다.

강유나청년은 히로시마출신 신주구지역에서 얼마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동포동네의 따뜻함을 느껴 지금도 열성껏 조창 신주구지부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바쁜 속에서 학부모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뒤에서 안받침해주는 총련지부와 념성동맹지부, 상공회를 비롯한 수많은 동포들의 존재가 나의 조청활동의 큰 원동력이 되고있다. 앞으로도 이곳 지부의 목표인 학교를 사랑하며 민족교육을 지고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에 한류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과학성과전시회 개막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과학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추진하고 교수방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수백건의 성과파자들이 출품되었다.

26일에 있는 개막식에서는 흥서련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전시회를 통하여 서로의 연구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현실에 도입하며 대학을 세제일류급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집필된 교과서, 참고서들과 교육지원프로그램들, 첨단실험기구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화력발전소 미분란보이러연소안정화기술, 태양빛 유도장치에 의한 자연조명체계를 비롯한 과학연구성과들은 실리있고 경제적인가 큰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세계적인 력기강자인 공화국의 엄윤철선수가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에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조선과 월남, 인도네시아, 도이쉴란 등을 비롯한 10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600여명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고있다.

엄윤철선수는 제30차 울림력기대회와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2018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들을 련이어 획득하여 공화국인민들과 세계력기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18일 남자 55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 출전한 엄윤철선수는 련결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166kg을 성공시킴으로써 또다시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영예의 1위를 하였다.

끌어올리기에서도 폭발적인 힘으로 128kg을 들어올려 1위를 쟁취한 그는 종합 294kg으로 세계기록을 돌파하였다.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3위를 하였다.

21일 여자 59kg급경기 출전한 최희심선수는 끌어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100kg을 성공한데 이어 104kg, 107kg을 련속 들어올려 세계 기록을 세우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2위를 하였다.

한련 오강철선수는 남자 49kg급경기 끌어올리기와 73kg급경기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은메달을 받았다.

지난 시기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립정심선수는 24일 여자 76kg급경기 출전하여 순간체력과 정확한 중심잡기 등 제치있는 련결동작으로 끌어올리기에서 124kg을 성공시킴으로써 세계기록을 세우고 1등을 하였다.

본사기자

세계적인 력기강자인 공화국의 엄윤철선수가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에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조선과 월남, 인도네시아, 도이쉴란 등을 비롯한 10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600여명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고있다.

엄윤철선수는 제30차 울림력기대회와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2018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들을 련이어 획득하여 공화국인민들과 세계력기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18일 남자 55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 출전한 엄윤철선수는 련결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166kg을 성공시킴으로써 또다시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영예의 1위를 하였다.

끌어올리기에서도 폭발적인 힘으로 128kg을 들어올려 1위를 쟁취한 그는 종합 294kg으로 세계기록을 돌파하였다.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림정심선수, 엄윤철선수, 최희심선수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 개막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민들이 사랑하고 널리 리용하는 민족악기들과 손공품을 비롯한 대중악기 등 50종에 800여대의 악기를, 40여종에 700여점의 부분품, 소모품이 전시되었다.

전시회기간 악기제작과 관련한 경험발표회, 연주회 등 다양한 사업들도 있게 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적수준의 악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나라의 예술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민들이 사랑하고 널리 리용하는 민족악기들과 손공품을 비롯한 대중악기 등 50종에 800여대의 악기를, 40여종에 700여점의 부분품, 소모품이 전시되었다.

전시회기간 악기제작과 관련한 경험발표회, 연주회 등 다양한 사업들도 있게 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적수준의 악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나라의 예술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민들이 사랑하고 널리 리용하는 민족악기들과 손공품을 비롯한 대중악기 등 50종에 800여대의 악기를, 40여종에 700여점의 부분품, 소모품이 전시되었다.

전시회기간 악기제작과 관련한 경험발표회, 연주회 등 다양한 사업들도 있게 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세계적수준의 악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나라의 예술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10월 1일은 《국제로인의 날》이다. 1990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45차회의에서는 《국제로인행동계획서와 활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해마다 10월 1일을 《국제로인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구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사회적제 및 보건의학적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와 혜택속에 여성

《세월이야 가보라지》

을 보내야 할 근로자들이 차별과 학대의 대상으로, 사회의 골치거리로 치부되고있다. 《퇴직후의 생활은 사형집행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 근로자들속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료되어 준공되었다. 이보다 앞서 4월 함흥시의 경치좋은 곳에 함경남도 양로원이 새로 일떠섰으며 련이어 남포시 오우도구역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조선식합각지붕을 띠고 특색있게 건설된 양로원이 준공되어 준공되었다. 이보다 앞서 4월 함흥시의 경치좋은 곳에 함경남도 양로원이 새로 일떠섰으며 련이어 남포시 오우도구역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조선식합각지붕을 띠고 특색있게 건설된 양로원이 준공되어 준공되었다.

행어이다. 난만 짜개지면 《물질적번영》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로인들이 초보적인 생활조건 보장받지 못하고 빈궁과 학대속에 죽어가고있다. ◆지난 9월 17일 신원군 신창리의 풍치수려한 곳에 함경남도양로원이 새로 건설

램이 늙으면 물러나는것이 인생의 리치이건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고복에도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이것은 평양양로원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는 한 보양생이 리친 진정어린 목소리이다. 진정 국가의 향량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마음의 토쇠를 모르며 건강함 몸으로 여생을 즐기는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얼마나 긍지높고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 사랑, 그 행복을 전하며 공화국의 근로자들이 진정을 담아 리치는 삶의 메아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울려퍼져 메아리쳐간다.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들을소나!

민족자존의 우수한 국풍

해당 나라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풍속이 국풍이다. 나라나 민족들의 발전과정에 고유한 국풍이 생겨나고 존재한다. 공화국은 자주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남달리 애국심이 높으며 화목하게 사는것을 비 롯하여 훌륭한 국풍이 있다.

이중에서도 자주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수한 국풍은 국가존립과 발전에서 관건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수 있다.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나라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어떻게 지키는가는 나라마다 달랐다.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이러한 민족자존의 정신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의 칼바람처럼 맹목하고 강하다.

백두밀림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던 그 시기 일제는 항일유격대를 가리켜 《창해일숙》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항일유격대가 발동까지 무장한 강적과 싸워이겨 마침내 민족제생의 새봄을 안아왔다. 사람들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부르는 가말처럼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침략세력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었고 전후 적대세력들이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어지지 못한다고 했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불과 14년이

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위업을 완성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업화를 실현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100년 또는 수백년의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모든것이 다 파괴된 빈터에서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한것이다.

1900년대에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생사기로운에서도 공화국은 굴함없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적대세력들이 짜놓은 《붕괴》 시간표를 변형의 시간표로 바꾸어놓았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공화국의 자세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어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던 2017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조선은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마련하는것으로써 자기의 존엄과 위상을 만반에 떨치였다.

남의 존엄을 짓밟고 현대판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멸종들의 강권과 전횡, 지배주의가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조선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봉건정부의 무능과 사대정책에 의해 《아관파천》, 《을미사변》과 같은 민족적수치를 당해야 했고 청일전쟁, 로일전쟁의 참화속에서 몸부림치던 삼천리강토가 왜놈들의 손에 통째로 넘어

갔던 조선근대사는 사대와 외세의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피절한 교훈을 새겨주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남쪽땅에는 아직도 사대와 굴욕이 배회하고

한강도에서 사는 하나의 민족이 지니고 있는 투철한 립장, 자기의 존엄과 운명을 오직 자기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나간다는 강인한 자주적의식은 공화국을 자주의 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우수한 국풍을 낳았다.

공화국은 세계정치의 중심에 우뚝 올라섰으며 어느 누구도 감히 간섭하지 못하며 세계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내는 신비스러운 위상은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돌출해나가고 있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향을 자아내고있다. 민족자존은 힘이고 변명이다. 민족자주의식으로부터 최악의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세기적인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는 자력갱생의 력사와 전통이 마련되고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사랑의 감정이 승화되었으며 조국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인을 모시여 국가의 존엄도 빛난다

세기의 위인들을 모시여 공화국에는 위대한 국풍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을 해치거나 나라의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았으며 인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자들과는 타협하지 않았었다.

나는 한평생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싸워왔다. 나의 일생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애의 총화라고도 할수 있다. 자주의 장점으로 일제에게 짓

밟혔던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전승소화를 창조하시고 전후 빈터우에서 조선을 자력갱생으로 다시 일떠세워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한번 누리에 떨치도록 하여주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간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일떠세우신것은 위대한

수로 돕고 이끄는 훌륭한 미풍도 마련되였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빛내여온 자랑찬 행로에서 그것이 귀중함을 사무치게 절감한 인민이기에 자주성과 존엄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이 우수한 생활양식은 공화국의 국풍으로 확립되였다.

합이자 존엄이다. 그 힘은 존엄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대는 강한 정신적이고 외세의 침략과 압력으로 부터 나라의 존엄을 지킬수 있는 정의의 강위력한 물리적힘이다.

웬간한 나라들 같으면 얼빠진도 더 손을 들고 나갔을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속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것이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수령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자주국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더욱 빛내이시였다.

조선을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애국의 맹세로 시작되고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시려는 신념으로 일관된 그의 탁월한 령도사는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여온 성스러운 력사였다.

크지 않은 나라가 적대세력들의 침략위협이 가중되는 속에서 자기의 존엄을 지켜내자면 힘이 강해야 한다.

합이자 존엄이다. 그 힘은 존엄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대는 강한 정신적이고 외세의 침략과 압력으로 부터 나라의 존엄을 지킬수 있는 정의의 강위력한 물리적힘이다.

웬간한 나라들 같으면 얼빠진도 더 손을 들고 나갔을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속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것이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힘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조선의 힘의 상징이시였다. 여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김정일사상, 김정일존엄이 없었다면 조선은 이미 자기의 존엄을 끝내쳤을것이라고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셨던 존엄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행성의 어느 나라의 령도자들도 지닐수 없는 강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가게하신다.

그이께서는 강한 자주적신념과 담대한 배짱으로 남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짧은 기간에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은 세계를 련속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적대세력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던 주체란들의 성공공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과 같은 시련속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것이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라고,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

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적대세력들의

경제제동은 자립, 자력의 열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이이께서는 자력갱생도 새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하여야 한다

고, 기술을 무시하는 자력갱생이란 있을수 없다고, 기술을 혁신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는것이 진짜자력갱생이라고 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심에 우뚝 올려세우신 장엄한 승전포성이였다.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제건설에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에도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비껴게 하시였다.

최근년간 그이께서 진행하신 외교활동은 자주외교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세계인론들은 나라의 자주권을 담당히 행사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각하는 신념과 배짱, 자주적대가 강한 강자형의 지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시며 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자기 할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주대있는 나라, 자주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은 결국 령도자의 덕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권위와 위인은 곧 공화국의 존엄의 높이이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한 생원이라는 민족적금지, 자주적신념이 투철하고 은 세계가 존경하여마지 않는 령도자를 모신 존엄높은 국가의 인민이라는 자부심, 이것이 곧 공화국인민들의 자존심이고 세계가 보란듯이 가슴을 쪽 찌고 살게 하는 배심이 아니겠는가.

령도자의 자주적대가 강하면 인민도 민족자존의 강자로 되고 자주적신념이 강한 인민들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국풍으로 된다.

령도자가 위대하기에 인민들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인생관의 체현자로, 오직 자기 힘만을 믿는 배짱가로, 자기의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애국주의 소유자들로,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굴할줄 모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절세 위인들의 강한 자주적대가 강한 자주적인민을 키웠고 우수한 국풍을 마련하였다.

본사기자 고성 호



대집단지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중에서(2018년)

부강조국을 건설하시는 길에서

오직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어느 해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꾸바녀성법률가 칸델라리아를 만났시였다.

칸델라리아는 위대한 수령님께 지난해 기양양수장에 가보고 홀딱 반하였다고 하며 울레에 다시 그곳에 가보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곳은 자력갱생의 상징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그곳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인 깃들어있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기양양수장에 있는 양수기를 락한의 10명당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

하여 만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들은 칸델라리아는 나는 조선을 방문하면서 수석동지께서 견지하시는 자력갱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고,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은 다 자력갱생이 낳은것이라고 감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좋다고, 우리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였다고 하시며 앞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아나갈것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과학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주체91(2002)년 6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룡

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제힘으로 건설하는 광휘로운 래일을 앞당기자고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 떨쳐나섰다.

그래서 일터마다에서는 창조적의 동음이 거세차게 울리고있다.

자기 힘으로 새 혁신, 새 기적을 창조하고 해놓은 일보다 이제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어가는 매 순간순간이 기쁨의 노래가 되고 모두의 행복이 된다

정도따라 준엄한 고난의 언덕을 넘으며 공화국인민은 행복은 오직 자기의 손에서 창조되며 자력갱생이야말로 만복을 안아오는 변형의 보검임을 더욱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조선의 힘이고 자랑이며 긍지인 자력갱생! 이 위대한 정신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농장의 자그마한 온실도 있는 데서

이이께서는 농장에서 생산능력이 큰 남새온실을 자체로 건설하고 갖가지 남새들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해주어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운영을 잘하여 농장원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모든 일터마다에서 끝없이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갈수록 자기 힘에 대한 긍지로 가슴이 부풀고 이런 힘을 안겨주시 절세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 가득차오르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자기 힘에 대한 긍지!

바로 여기서 드높은 삶의 화열이 솟구치고 가슴벅찬 창조적의 열정도 솟는것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공화국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비약의 폭풍속에서 인민은 자기들이 점령해야 할 자력갱생의 높이가 어떤것인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인민의 행복과 문명의 높이가 과연 어떤것인지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다.

</

민족이 단결을 위해 바치는 고귀한 헌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의 첫 시기부터 민족의 단결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시면서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결집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시며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 가시었다.

돌아보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곧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애국애족적인 령도였다.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해방의 환희로 들끓던 조국땅에는 민족분열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우게 되었으며 나라의 정세는 참으로 복잡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인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울 때 대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층의 애국력량을 민족자주위업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대한 령도였고 애국력량의 결정적우세로 내외분열

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 수립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로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북반부에서 각계층의 대중을 망라하는 사회단체들이 결성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주체35(1946)년 7월 평양에서는 북조선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가 열리었다.

이 회의에서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통일전선운동은 위력한 거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조직적인 운동으로 힘차게 전개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남조선에 국력량과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해방후 복잡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으로 애국의 길을 모색하던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이 해방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사선을 헤치고 평양으로 찾아왔다.

통일애국의 령정을 따름에 (8)

민족통일전선형성방안과 4개 항목의 통일방안 제시

1970년대 중엽에 캄보자, 라오스, 월남에서 미국이 쫓겨난 후 불안과 공포에 싸인 남조선의 《유신》독재 《정권》은 7.4공동성명을 더욱 로골적으로 위반하고 반공소동과 전쟁도발책동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결렬케로 몰아갔다.

공화국은 《두개 조선》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의 대화에 정제상태에 빠지고 통일의 앞길에 난관과 장애가 겹쌓이는 환경속에서도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과 남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위업과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긴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으로 된다.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적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없애고 하시면서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겨오 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과 의지를 높이 받들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1970년대 중엽에 캄보자, 라오스, 월남에서 미국이 쫓겨난 후 불안과 공포에 싸인 남조선의 《유신》독재 《정권》은 7.4공동성명을 더욱 로골적으로 위반하고 반공소동과 전쟁도발책동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결렬케로 몰아갔다.

공화국은 《두개 조선》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의 대화에 정제상태에 빠지고 통일의 앞길에 난관과 장애가 겹쌓이는 환경속에서도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과 남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위업과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긴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으로 된다.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적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없애고 하시면서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겨오 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과 의지를 높이 받들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수기

짜뜻한 삶의 품 (1)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해방된 서울의 달라진 모습은 아버지를 흥분시켰다. 아버지는 용약의 용군에 탄원하였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행운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가렇듯 절한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아버지의 재능의 싹을 소중히 여겨 대학으로 불러주었고 그후에는 외국의 유명한 음악대학에 유학을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었다.

류학을 마친 아버지는 함경남도가무단(당시)의 성악배우가 되었다.

그러던 1961년 어느날, 28비탈론공장(당시)조업식에 나오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족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친히 보아주시는다는 놀라운 소식에 접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가족의 주인공역을 맡아줬었다.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아버지는 언제 공연이 시작되었는지, 노래는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공연이 끝난 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가족에 출연하였던 배우들을 연회에 불러주시고 몸소 아버지의 술잔을 짹어주시며 오늘 가족공연을 아주 잘하였다고 높은 치하를 주시었다.

행법한 성악배우에게 돌려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은

혁명가곡 《피바다》의 한 장면



어 버 이 수 령 님 김일성대원수님 마음은 한없이 설레입니다. 지난날 머슴으로 살던 이 몸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습니 다



전우봉선생

에도 가보지 못한채 어려서 부터 철공로동을 하면서 뽀뽀를 벌여 집안살림을 돕지 않았던 안 되었다.

원래 경기도 고양군(당시) 농촌의 지주집머슴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아니라 역시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나니 이름도 없이 김씨로만 알려진 어머니와 결혼을 하여 살림을 찾아 서울에 와서 하루살이 목공로동으로 3남매를 키우는 집안살림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이 일제통치하에서 더욱 살림형편이 곤란하게 된것은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돈이 없어 약 한첩 써 보지도 못한채 내가 5살 나던 해에 한참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였다.

아버지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게 노래를 불러주고 받은 푼돈으로 연명하고있었다. 아마 그 사람은 우연히 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뒤를 따르던 것 같았다.

《아주머니, 맥의 아들을 나한테 맡기지 않겠소?》 《예?》 《아들이 친성적인 재능을 타고난것 같은데 내가 운영 하는 약국단에 보내면 노래도 배워주고 밥도 먹여주겠소.》 《안돼요!》 어머니(나의 친할머니)는 단마디로 거절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가난한 살림속에서도 예지증지키워온 아들이 아닌가. 더우기 남편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고 둘째아들도 죽은데다 맏아들은 돈을 벌여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다다나니 집안에서 의지할 사람은 막내아들뿐이었던것이다.

그때 방안에서 어른들의 말을 듣고있던 그 막내아들이 와당처럼 뛰어나오며 《어머니, 나 이 아저씨를 따라 갈래요.》 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있고 아들은 예원에 찬 눈길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허공에서 엇갈리는 시선을 타고 말없는 대화가 오고갔다.

이 많은 노래들중에서도 아버지가 《아 수령님품이여》를 제일 좋아한것은 무엇보다 때문이었을가.

아버지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1932년 9월 21일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막벌이로동자 한기석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 집은 아주 구차하였다. 집이 없어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는 형편이었고 두 형은 학교문전

전우봉의 말발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울수 없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교착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문제를 두고 마치 그 원인이 저들이 아닌 다른데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며칠전 통일부당국자가 나서서 《정부가 계속 대화를 제안하였지만 북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다.》고 했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도 《북이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것다》이라는 회피용 소리를 늘어놓았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좋게 호르던 북남관계가 지금과 같은 교착국면에 처하게 된것이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의 이중적행태때문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선언리행》을 운운하면서도 실제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해왔다. 말끝마다 그 무슨 《제재》와 《비핵화》를 떠들면서 북남선인들의 조장리행을 거부해나선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뿐만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각종 합동군사연습의 간판이나 바꾸어다는 식으로 상대를 우호화하려는가 하면 첨단전장장비 도입에 발악적으로 매달렸다.

오늘과 같은 교착국면은 전적으로 앞에서는 《대화》와 《신뢰》를 읊조리고 뒤에 돌아서서는 은폐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린 남조선당국이 초래한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과 온 거레는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북남선언리행을 회피하고 간판을 바꾸어던 각종 합동군사연습과 첨단전장장비 도입에 매달리는 남측당국의 배신적행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얼굴을 쳐들 체면도 없는 남조선당국이 적반하장적으로 북남관계교착의 책임을 떠넘기는 놀음을 벌려놓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언동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만 매달리던 이전 보수 《정권》 패거리들의 파렴치한 망동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채택발표하던 당시의 초심과 반성의 기미는 꼬를 만금도 찾아볼수 없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워버리는것은 백지들이나 할 어리석은것이다.

저들의 반민적망동을 가리워보고도 본말을 전도하는 부질없는 행태에 계속 매달리라고 하여 진실이 달라질수는 없는 법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최근 남조선군부호전평화들이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무모한 군사적행위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지난 23일부터 조선반도유사시 《군사전진행능력과 민관경외의 통합방위작전수행절차를 숙달》한다는 미명하에 인천과 부천, 김포시일대에서 벌려놓은 《2019년 대침투종합훈련》이 그러하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해외에서 시험발사하기 위해 피씨일촌현장에서 여러 나라들을 후보지로 정하고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으로서 민족의 평화지향에 대한 우동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되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약속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2019년 대침투종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무기시험을 강행하려 하는것은 북과 남이 평화변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는 도발적망동인것이다.

결국 남조선군부가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에 대해 골잘 떠들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족압살을 노린 전쟁준비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북과 남이 다같이 노력할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

대세의 흐름과 거래의 지향에 배치되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모한 군사적망동은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반민적적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군사적움직임

영구강점기도의 산물

북과하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에 대한 전진, 평시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아 내외 각계의 비난과 저주, 규탄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마지못하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틀어쥐려는 목적밑에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8년 7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직에 미군장성이 아니라 캐나다군중장을 임명했는데 이어 2019년 4월에 오스트랄리아해군소장을 올려냈으며 일부 참모들도 《유엔참전국》의 군인들로 교체한것은 이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특히 2019년초에는 남조선군참모들을 더 많이 배

속시키려 하는 등 《유엔군사령부》를 사실상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만들어 그 존재를 영구화하며 이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여전히 행사하려 하고있다. 결국 이번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라고 강박한것도 이러한 기도의 연장선이다.

지금 남조선군부당국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하던 작전통제권가운데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저들에게 이미 반환되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가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 이루어지면 《미태련합군사령부》가 작전지휘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유엔군사령부》는 전

시작전지휘권도 없다고 하고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강도의 주머니에서 자기 물건을 꺼내보겠다는 꿈에 불과한것이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계속 틀어쥐게 되면 남조선군이 지휘하는 《미태련합군사령부》는 당연히 허수아비기구가 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내외의 강력한 요구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시대착오적망동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있지

못하는 정권은 현 남조선 《정권》 뿐으로서 이것은 력대 친미 《정권》들이 매달려온 외세의존정치가 벗어날 굴욕과 수치이다.

허울좋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 간판밑에 더욱 조여지는 미국의 군사적영구강점과 예속의 울가미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세추종으로부터 민족자주에로 방향전환하는것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자주국방》, 《안보자강》을 입버릇처럼 외우기 전에 뿌리깊은 사대굴종정책과 단호히 결별하는것이 마땅하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의 군사적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적극 밀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단체 평화실현을 위해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녀성평화운동네트워크가 20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투쟁할것을 선언하였다. 발언자들은 아직까지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홀어친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쟁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녀성들이 조선반도평화실

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바란다면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보수역적당의 해체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백두수호대가 21일 《자한당》 당사앞에서 보수역적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긴급집회를 가졌다. 발언자들은 《자한당》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아니라 남북합의를 파괴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것은 외세의 리익만을 위하는 적폐집단입

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자한당》이 안보를 핑계로 남북관계개선을 무조건 반대하는것은 민족분렬에 기생하여 살아가있기때문이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도 제대로 인식 못하여 외세에만 빌붙는 무능한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당장 사퇴하

는것과 함께 국민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시기 저지른 온갖 죄행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자들을 모조리 잡아내어 엄하게 처벌하며 있으나나한 《자한당》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보수꼴통들의 더러운 친일망발들이 계속 튀어나와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연세대학교 교수라는자가 《발전사회학》 강의시간에 일제가 감행한 성노예범죄를 미화하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자유로운 의사노동을 벌기 위해 매춘행위를 결정했다.》고 더러운 나발을 불어낸것이 대표적실례이다.

더구나 사람들을 아연케 한것은 이자가 홍준표가 대표로 있던 시기 《자한당》것들이 이른바 《당개혁》을 추진한답시고 임명하였던 《당혁신위원회》이었다는 사실이다.

민족의 얼도 없는 이런 친일매국노들 《당혁신위원회》로 내세웠었으니 《자한당》이 얼마나 친일에 물든 매국노의 집단인가는 더 설명할필요도 없다.

친일과 매국배족을 생존방식으로 삼는 《자한당》 패거리들의 입에서 구린내나는 친일말들밖에 터져나오질 않았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자한당》것들은 세상을 경악케 하는 망발들로 친일적패부리로서의 추악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조선동회에서 일본해상

《자위대》의 순찰기가 위협비행을 하며 도발했을 때 원내대표 라경철과 김무성, 정진석을 비롯한 《자한당》의 의원이라는자들은 《음분》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심을 거슬러 《일본은 중요한 우방이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적과도 동맹하는것이 외교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얼빠진 수작질을 늘어놓았다. 박근혜가 일본에 아무바라 만들어나갔던 《해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이 인민들의 투쟁으로 해산되자 역적무리들은 《심중치 못한 결정이다.》, 《지나친 과거지향적자세때문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는 분리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치명리는 반민적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해나선 아베일당의 철면피한 행위를 구구 비호두둔해나섰다.

적반하장적인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격노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 일본상품배척운동이 벌어지자 황교안은 《해국정책》이라고 빙정거렸는가 하면 《자한당》내에서 술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서서 《반일감정조정》, 《자제》, 《지금은 친일을 할 때》라고 왜거리청을 돌구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한일교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엉망한 조치에 대해서도 《자한당》 패거리들은 《일본과의 동맹을 위협에 빠뜨리는 도박》, 《국가안보의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양양블락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대신 군국주의부활과 제침야망실현에 광분하고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친일공노할 과거죄악들을 미화분식하며 과렴치하게 놀아대는 아베일당을 비호두둔하다 못해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까지도 심히 중상모욕하며 타협과 굴종을 설교하는 가증스러운 이자들의 똥똥가리 어찌 조선사람의 과거호른다고 하겠는가.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자한당》의 추태와 망동에 남조선 각계가 《민족을 등진 정치사생아》, 《친일이 뼈속까지 들어찬 토착왜구》, 《아베에게 불어살려는 기생충》이라고 저주규탄하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자한당》이야말로 권력과 치부를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도, 리의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현대판 《울사오적》들이며 민족의 얼마저 깡그리 저버리고 외세에 기생하여 더러운 명줄을 부지해오는 사악한 친일매국노들의 소굴이다.

력사는 《자한당》역적무리를 민족의 화근덩어리, 친일적폐의 원흉으로 두고두고 기록할것이다.

김영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전진, 평시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아 내외 각계의 비난과 저주, 규탄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마지못하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틀어쥐려는 목적밑에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8년 7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직에 미군장성이 아니라 캐나다군중장을 임명했는데 이어 2019년 4월에 오스트랄리아해군소장을 올려냈으며 일부 참모들도 《유엔참전국》의 군인들로 교체한것은 이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특히 2019년초에는 남조선군참모들을 더 많이 배

있어서 리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민적경제정책을 그대로 복사한데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 《리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재량한 수준》, 《겉으로는 《민부론》인데 내용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자만는것》,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민폐론》이라는 야유와 조소의 묵

약》은 한갓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박근혜 역시 리명박을 흉내내어 연간 4%의 경제성장률과 70%의 고용률, 국민소득 4만US\$를 실현하겠다는 《474공약》을 흔들어대며 《3대추진전략》, 《100대실현과제》 등을 요란스레 떠들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실현한것이 없다. 오히려 《국정》 룡단을

아넣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조장시켰다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자한당》것들은 시대와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끌려간 리명박, 박근혜역도들의 반민적경제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민부론》, 《민폐론》을 세기이나 되는것처럼 오도하면서 민심을 유혹해보려고 모지름

본사기자 김응철

《민부론》이 아니라 《민폐론》이다

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2007년 《대선》에 나선 리명박은 10년안에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US\$, 세계 7대강제대국》으로 되게 한다는 《747공약》을 내걸고 여론을 기만하면서 권력의 자리를 나누어줬지만 2012년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실린 《장미빛공약에서 저주의 수자로는 변신한 747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처럼 《공

일삼으면서 막대한 검은 돈을 제 배속에 처넣은 죄악으로 감옥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재산을 먼저 늘리기 위한 제벌 위주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바람을 탄 친기업, 반노동자적인 경제정책》이며 과거의 《박정희시대개발독재》를 추기한 《747공약》, 《474공약》은 남조선경제와 민생을 파국에 몰

을 쓰고있으니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남조선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개선》할수 있는 세력을 오직 저들뿐이라는것을 널리 광고하여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는 한편 제벌들의 환심을 사고 우익보수세력들을 결집시켜 제정권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자는데 《민부론》발표의 진짜 목적이 있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민부론〉이 담고있는 정책내용이나 실현가능성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경제로선이 현 정권과 다르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 《민부론》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평하고있는것이 이를 옹변하고있다.

하지만 지나온 력사가 말해주듯이 《자한당》의 조상들은 언제 한번도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경제정책을 세우고 실현한적이 없었으며 오직 자기들의 부귀영달과 권력유만을 추구하면서 온갖 반민적죄악들을 저질렀다.

《민부론》은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이나 어려운 삶을 더욱 최악의 곤경으로 몰아가려는 《민폐론》 입이 틀림없다.

《자한당》것들이 아무리 《민부론》에 대해 떠들어대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하나도 없다.

리종일

《당혁신위원회》로 내세웠었으니 《자한당》이 얼마나 친일에 물든 매국노의 집단인가는 더 설명할필요도 없다.

친일과 매국배족을 생존방식으로 삼는 《자한당》 패거리들의 입에서 구린내나는 친일말들밖에 터져나오질 않았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자한당》것들은 세상을 경악케 하는 망발들로 친일적패부리로서의 추악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조선동회에서 일본해상

《자위대》의 순찰기가 위협비행을 하며 도발했을 때 원내대표 라경철과 김무성, 정진석을 비롯한 《자한당》의 의원이라는자들은 《음분》의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심을 거슬러 《일본은 중요한 우방이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적과도 동맹하는것이 외교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얼빠진 수작질을 늘어놓았다. 박근혜가 일본에 아무바라 만들어나갔던 《해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이 인민들의 투쟁으로 해산되자 역적무리들은 《심중치 못한 결정이다.》, 《지나친 과거지향적자세때문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는 분리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치명리는 반민적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해나선 아베일당의 철면피한 행위를 구구 비호두둔해나렸다.

적반하장적인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격노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 일본상품배척운동이 벌어지자 황교안은 《해국정책》이라고 빙정거렸는가 하면 《자한당》내에서 술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서서 《반일감정조정》, 《자제》, 《지금은 친일을 할 때》라고 왜거리청을 돌구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한일교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엉망한 조치에 대해서도 《자한당》 패거리들은 《일본과의 동맹을 위협에 빠뜨리는 도박》, 《국가안보의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유신》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공정은 그 딸인 박근혜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기에 박근혜의 지난 집권 4년과는 친일매국행위로 얼룩져온 매국반역의 4년간이었다.

질린하자마자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사관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빠졌이 들어왔던 박근혜는 력사외교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의 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섰다.

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박근혜는 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을 거러잡없이 체결하였으으며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표현할 때 《다께시마》라는 일본식명칭과 함께 써도 된다는 매국적인 지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남조선 각계의 치초는 격분을 자아냈다.

2013년 11월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부수석비서관

《유신》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공정은 그 딸인 박근혜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기에 박근혜의 지난 집권 4년과는 친일매국행위로 얼룩져온 매국반역의 4년간이었다.

질린하자마자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사관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빠졌이 들어왔던 박근혜는 력사외교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의 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섰다.

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박근혜는 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을 거러잡없이 체결하였으으며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표현할 때 《다께시마》라는 일본식명칭과 함께 써도 된다는 매국적인 지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남조선 각계의 치초는 격분을 자아냈다.

2013년 11월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부수석비서관

《유신》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공정은 그 딸인 박근혜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기에 박근혜의 지난 집권 4년과는 친일매국행위로 얼룩져온 매국반역의 4년간이었다.

질린하자마자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사관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빠졌이 들어왔던 박근혜는 력사외교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의 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섰다.

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박근혜는 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을 거러잡없이 체결하였으으며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표현할 때 《다께시마》라는 일본식명칭과 함께 써도 된다는 매국적인 지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남조선 각계의 치초는 격분을 자아냈다.

2013년 11월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부수석비서관

《유신》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공정은 그 딸인 박근혜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기에 박근혜의 지난 집권 4년과는 친일매국행위로 얼룩져온 매국반역의 4년간이었다.

질린하자마자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사관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빠졌이 들어왔던 박근혜는 력사외교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의 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섰다.

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박근혜는 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을 거러잡없이 체결하였으으며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표현할 때 《다께시마》라는 일본식명칭과 함께 써도 된다는 매국적인 지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남조선 각계의 치초는 격분을 자아냈다.

2013년 11월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부수석비서관

《유신》독재자의 더러운 친일매국공정은 그 딸인 박근혜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기에 박근혜의 지난 집권 4년과는 친일매국행위로 얼룩져온 매국반역의 4년간이었다.

질린하자마자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 력사교과서들을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사관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력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빠졌이 들어왔던 박근혜는 력사외교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의 책동에 적극 추종해나섰다.

친일사대의식이 골수에 박힌 박근혜는 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을 거러잡없이 체결하였으으며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이 조선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표현할 때 《다께시마》라는 일본식명칭과 함께 써도 된다는 매국적인 지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남조선 각계의 치초는 격분을 자아냈다.

2013년 11월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부수석비서관

본사기자 김응철



《자한당》의 친일매국의 행적 (5)

제 아비의 친일매국행위를 본받아

의 글에서 첫째로 《강제리행》 인정하지 않아, 둘째로 모호한 《법적책임》, 셋째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에로의 진출발판마련, 넷째로 비판의교중단야속, 다섯째로 소녀상이전가능성이 라고 평한것은 일본이 《합의》로 얼마나 큰 리의를 얻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대승적정지에서 리해해달라.》고 하면서 저들의 친일매국행위를 력사발전과 동

을 신동히도 방불케 하였다. 치마두른 친일악녀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미레지향적인 관계구축》과 《돈독한 신뢰구축》을 운운하면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호시탐탐 군사적제침을 노리는 민족의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망동짓도 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해 《력사의 아픔을 달래는 외교적결실》,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최상의것을 받아냈것》이라고 억지론 자화자찬까지 늘어놓

은 신동히도 방불케 하였다. 치마두른 친일악녀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미레지향적인 관계구축》과 《돈독한 신뢰구축》을 운운하면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호시탐탐 군사적제침을 노리는 민족의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망동짓도 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해 《력사의 아픔을 달래는 외교적결실》,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최상의것을 받아냈것》이라고 억지론 자화자찬까지 늘어놓

은 신동히도 방불케 하였다. 치마두른 친일악녀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미레지향적인 관계구축》과 《돈독한 신뢰구축》을 운운하면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함으로써 호시탐탐 군사적제침을 노리는 민족의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망동짓도 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일매국행위에 대해 《력사의 아픔을 달래는 외교적결실》,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최상의것을 받아냈것》이라고 억지론 자화자찬까지 늘어놓

신일국 (골)

제 힘으로 흥하는 공장

— 남포시에 있는 와우봉은하가공공장을 찾아서 —

남포시 와우봉도구역에 자리 잡고있는 와우봉은하가공공장은 지난 시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장이다. 하지만 오늘은 흥하는 공장으로서 자랑된다. 그 비결을 알고싶은 흥하는 기자인 나로 하여금 와우봉은하가공공장으로 향하게 했다. 공장에 도착하니 리영순기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런 공장이 오늘은 현대적인 피복공장으로 전변되었다고 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제일 걸린 문제는 피복생산을 맡아할 기술자, 기능공들이 없었던 것이었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꾼들은 모여앉아 밤새워 방도를 도론했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결심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꾼들은 기술자, 기능공, 설비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 다른 공장들에 사장이 있는 설비를 가져다 수리하여 피복생산을 시작하였는데, 리영순기사는 말했다. 「공장에서 피복생산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기능공들로 키우고 부족되는 설비들을 갖추는 한편 새로운 피복생산건물건설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지금은 비록 고생스러워도 오늘을 즐겁게 추억할 때가 꼭 온다. 우리 일터, 우리 공장을 우리 손으로 꾸리자.」

심금을 울리는 지배인의 호소에 온 공장사람들이 떨쳐나섰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공사에 착공한지 석달만에 피복생산건물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생산로가 확립되는데 맞게 공장에서는 피복가공품의 질을 높여나갔고 자체의 수리기도 그쁘히 갖추어놓아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하여 피복가공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공장

은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앞선 공장들을 따라잡게 되었다.

그 나날에 힘은 들었어도 보람은 컸다며 리영순기사는 우리를 현장으로 이끌었다.

계단과 복도벽에 혁신적인 성과들과 종업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소개하는 속보들이 붙어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었다.

리영순기사는 이 건물 역시 몇해전 전국경공업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지배인의 발기로 새로 지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회에 참가하여 경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돌아온 지배인은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경공업부문 일꾼들은 경적과 도식, 침체와 부진을 배격하고 참신하고 탄력있게 일하며 합리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자체의 힘으로 확대재생산을 실현하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아키우는것은 그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뿐 아니라 녀성들을 가정에서 자립성을 키우고 여러 가지 좋은 습성도 불어주고 있다.

하여 녀성들이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들려지던 많은 시간을 사회정치활동에 돌릴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어린이들속에서 재미나는 생활을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각 도와 시, 군들에도 주탁아소, 주유치원들이 꾸려져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녀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것이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언론들은 그 원인의 하나가 엄청난 양육비부담에 있다고 평하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이 한명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어른 한명의 월수입금액을 바쳐야 한다고 한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한 가정에서도 그러할진대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는 것은 공화국의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따뜻이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가장 훌륭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있어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앞날의 역군으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우리 지배인동지는 공장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왔습니다. 나도 지배인동지의 손에 이끌려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

신 경여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다시 한번 분발하자.」

종업원총회에서 지배인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안팎으로 일신하자고 호소했다. 이튿날부터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었다.

하여 짧은 기간에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을 그쁘히 갖춘 생산건물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현대적인 설비들로 갱신한 공장의 생산능력은 몇배로 장성하였고 생산로도 튼튼히 다져졌다.

리영순기사는 말하였다. 《비록 크지 않아도 인민 생활향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준다고 창조했다는 긍지가 큼니다.》

취재는 끝났다. 하지만 자랑많은 일터에서 일하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면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공화국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생이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전적으로 말아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수립되어있다.

해방후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내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를 세웠다. 가령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수많은 육아원과 육아원들을 내고도 전제교아들을 키우는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전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로 나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탁아소,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혈전용해제 개발에 깃든 애국의 마음

나라의 의학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원장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연구자들이 보건발전에 이바지할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의학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높은 열의를 안고 피라게 노력하는 과정에 대학의 유전학연구소 첨단생물제품개발실의 연구자들은 첨단기술제품인 혈전용해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 연구소에서 세계적으로 효능이 높은 혈전용해제로 알려진 알피메프라제를 국산화할 목표를 내세운것은 어려웠었다. 그때 자신들이 선택한 연구과제를 놓고 연구자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한것은 알피메프라제개발

은 그 출발물질이 남아메리카의 살모사독속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소분해효소유전자인것으로 하여 유전자합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출발물질의 제조합과 제품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누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미개척분야였기때문이다.

알피메프라제분해효소의 효능적인 제조조각기술 또한 난도가 높고 품이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개발사업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있었다.

(첨단계획의 길이 두터워 물러선다면 우리를 두고 누가 진정한 조선의 의학자라고 하겠는가. 힘들어도 우리의 것이라고 믿어야 말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혈전용해제를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분발해나선 이들은 알피메

라제의 제조와 생산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대단히 열정을 쏟았다.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새것을 창조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학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의 제조방법은 배양원가가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국내실정에 맞지 않았다.

새로운 제조방법을 찾아내야만 하였다.

이곳 연구자들은 생물공학적인 방법으로 살모사독속에 있는 섬유소분해효소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첫 공정부서 국내실정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였다.

참고할만한 한 문헌도 경험자료도 없었지만 이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하나의 각오만을 안고 초행길을 주저없이 헤쳐나갔다.

여 혈전용해제인 알피메프라제가 첨단기술제품으로 개발되게 되었다.

이들이 개발한 주사약은 이전시기에 나온 3세대혈전용해제보다 혈전용해속도와 활성이 4~6배나 높고 출혈부작용이 거의 없는것으로 하여 심근경색과 뇌혈전을 비롯한 혈전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것이 임상실험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높은 혈전용해활성과 작용속도, 섬유소에 대한 직접적인 분해작용 등 혈전용해제로서의 이상적인 지표들을 충분히 갖춘것으로 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혈전용해제는 이렇게 개발되었다. 오늘도 이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첨단들과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한것은 알피메프라제개발

여 혈전용해제인 알피메프라제가 첨단기술제품으로 개발되게 되었다.

이들이 개발한 주사약은 이전시기에 나온 3세대혈전용해제보다 혈전용해속도와 활성이 4~6배나 높고 출혈부작용이 거의 없는것으로 하여 심근경색과 뇌혈전을 비롯한 혈전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것이 임상실험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높은 혈전용해활성과 작용속도, 섬유소에 대한 직접적인 분해작용 등 혈전용해제로서의 이상적인 지표들을 충분히 갖춘것으로 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혈전용해제는 이렇게 개발되었다. 오늘도 이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첨단들과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통일신문》가 만난 사람들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진주현, 김영록 탁구선수들이 2019년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와 2019년 국제탁구련맹 방콕장애자공개탁구경기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얼마전 기자는 조선

김영록선수는 개인전(TT7부류)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기쁨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매다 봄철과 가을철에 조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승하곤 하였습니.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

각하니 그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김영록선수)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가 울리는 속에 랍홍색공화국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키워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에 조금이나마 보답했다는 생각으로 흐르는 눈물을 검잠수 없었습니다.》(진주현선수)

김영록선수는 2016년 봄철 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오늘은 국제무대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도록 이끌어주었다.

15살때 무릎에 심한 타박을 받고 다리와 척추를 못쓰게 된 진주현선수 역시 어릴

금메달에 비끼는 보답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해맑은 얼굴에 천진한 웃음을 지으며 맞아주는 김영록 선수를 보는 순간 생각이 많았다. 두팔이 절반이나 없는 상태에서 정상인들이 손으로 쥐는 탁구채를 오른팔에 고정하고 민첩한 동작을 요구하는 탁구를 친다니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높은 기술과 육체적능력으로 치릴하게 승부를 가르는 국제경기들까지 진출하여 우승을

결승경기에서 2:0으로 이기었다. 타이핑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2:0으로 이긴 그들은 예선에서 맞닥들었던 중국탁구 선수들을 치르게 되었다. 《결승경기를 앞두고 감독동지와 전술안을 토의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결승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능숙한 좌우결합과 제인 방어, 강한 바로걸어치기를 배합하면서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여 상대선수들을 이기고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김영록선수 그대의 심정이 되살아났듯 흥분하여 한말이었다.

그후 진주현, 김영록선수들은 2019년 국제탁구련맹 방콕장애자공개탁구경기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8월 타이에서 진행된 이 경기에는 로씨야, 인도네시아, 인디아, 도이칠랜드, 중국 홍콩을 비롯한 21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 선수 130여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단체전 (TT6~TT7부류) 경기에 출전한 진주현, 김영록 선수들은 맞다른 팀들을 모두 이기고 영예의 1등을 하였다. 진주현선수는 개인전 (TT6부류)경기에서 1위를,

김영록선수는 개인전(TT7부류)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기쁨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매다 봄철과 가을철에 조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승하곤 하였습니.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

김영록선수는 2016년 봄철 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오늘은 국제무대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도록 이끌어주었다.

15살때 무릎에 심한 타박을 받고 다리와 척추를 못쓰게 된 진주현선수 역시 어릴



김영록선수는 개인전(TT7부류)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기쁨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매다 봄철과 가을철에 조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승하곤 하였습니.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

김영록선수는 개인전(TT7부류)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기쁨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매다 봄철과 가을철에 조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승하곤 하였습니.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

김영록선수는 개인전(TT7부류)경기에서 3위를 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기쁨이 남다르리라고 본다. 《매다 봄철과 가을철에 조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승하곤 하였습니.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쟁취하는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

생활속에서 친근하게 자리잡은 은정차

우리 민족의 차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나라시기에 벌써 많은 곳에서 차나무들이 재배보급되었으며 고구려와 백제, 신라사람들이 차를 마신 자료들이 《삼국사기》를 비롯한 역사자료들에 반영되어 있다.

차문화는 고려시기에 널리 퍼졌는데 이것은 고려자의 생산과 리용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당시 맛과 향기가 독특하였고 고려차는 우아함과 정교함 그리고 다종다양함으로 유명한 고려차주전자, 차일항아리, 차

잔 등 고려자들과 함께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 인기 대단했다.

세계적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랜 우리 민족의 차문화는 공화국에서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더욱 활짝 꽃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차나무를 몸소 저택에 심고 재배시도 하시었으며 풍토순화시켜 퍼지도록 하시었다. 황해남도 강령군의 양지바른 곳에 차나무를 심도록 적지도 정해주시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도 하나하나 밝혀주

신 그이의 손길아래 마침내 차나무가 낮은 기온조건에서도 적응되고 풍토순화되어 뿌리내리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차나무재배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셨으며 차나무를 심어주시고 재배하시어 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차를 《은정차》로 부르도록 하시었다.

강령군에서는 차재배전조성과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근기있게 진행하여 해마다 그 면적과 생산량을 늘이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차가공기계를 일

떠세워 이 일대를 국내에서 이룬다 차생산기지로 전변시켰다.

오래전부터 《신선의 음료》, 《만병통치의 장생불로약》으로 간주되며 사람들의 생활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차는 공화국에서 누구나 즐겨 마시는 인기있는 대중음료로 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은정차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날이 높아지고있다.

지금 각지의 금강봉산단위 들로는 많은 사람들이 은정차(죽차, 홍차, 찻잔음차)의 독특한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있다.

창천거리에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은정차집이 있다.

중구역 경상동에 살고있는 리금철로인은 은정차에 대해서도 으뜸인 특차의 맛을 보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 고 하면서 은정차를 마실 때마다 독특하고 순수한 맛에 감탄한다고 말하였다.

은정차에는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주요성분들과 비타리류들이 다른 차들에 비해 매우 풍부하게 포함되어있다.

은정차는 다른 나라의 차전문가들속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조선을 방문하여 은정차를 맛본 중국의 절강대학 차연구소 소장 왕악비는 그 맛이 참 독특하다고 하면서 특히 강령특차는 국제시장에서 당당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창천거리의 은정차집에서는 특차와 홍차는 물론 보리차, 메밀차, 강병이수염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를 손님들에게 봉사해주고있다.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은 은정차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건강장수에 좋은 온천들

산 좋고 물 맑고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금수강산으로 불리우는 이 땅에는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를 좋은 온천자원도 풍부하다.

온천이라고 하면 온도가 20℃를 넘으며 보통물과는 구별되는 물리화학적질과 생물학적작용이 있는 샘물을 말한다.

온천에는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 염소이온, 수소산이온, 메타규산, 라듐, 류화수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

온천들은 화학적성분에 따라 염화염천, 수소산염천, 류화천, 라듐천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은 적용중에 따라 마시는 방법, 위세척방법, 직장안적용방법, 온몸욕적용방법 등이 있다.

전국각지에 분포된 온천은 60여개이다. 그가운데서 평안남도 양덕군 석랑온천과 함경북도 명천군 황진온천을 비롯한 류화천이 10여개, 함경북도 경성군 경성온천,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종달) 온천을 비롯하여 라듐천은 근 20개, 그밖에 염화염천과 수소산염천이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양덕군의 온천들은 피부연화, 심근수축 및 혈액순환촉진, 소염 및 재생촉진, 탈감작, 위액분비억제, 장운동운동자극 등에 좋으며 성천 온천은 주로 척추관절염, 변형성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수술후유증 등의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

남포시 온천군 읍에 위치하고있는 평남(풍강)온천은 고혈압환자들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있다.

운산온천, 삭주온천, 신은 온천, 원흥온천, 소무온천을 비롯하여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온천들은 대체로 수소산염천, 류화천, 라듐천들이며 만성위염을 비롯한 위장병과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부인병 등을 치료하는데 좋다.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종달) 온천은 진통, 진정작용과 함께 자물신경의 기능을 높이는 작용, 혈액순환강화작용, 소염작용 등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강원도의 의금강온천과 함경남도의 인흥온천 등의 온천들은 대체로 류화천, 염화염천, 수소산염천 등이며 혈액순환강화와 물질대사를 촉진하는것으로 하여 만성위염치료와 신경통치료 등에 좋다.

함경북도에는 온포온천, 룡천온천, 독포온천, 명천온천 그리고 강라돈천인 세천 온천 등 20여개의 온천들이 분포되어있으며 량강도에는 내포온천, 백두온천 등이 있다. 이 온천들은 관절염, 소화기질환 등의 치료에서 좋은 작용을 한다.

가을비는 가시야바지의 턱수염밑에서 웃는다

가을비는 잠간 오다 곧 그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가을비는 딱비요 봄비는 잠비라

가을에는 풍요하여 비가 오면 떡을 쳐먹고 봄에는 비가 오면 으스스하여 잠을 잔다는 뜻

가을 식은밥이 봄랑 식이다

가을에는 넉넉하다가 먹지 않고 내놓은 식은밥이 봄에 가서는 귀중한 랑식이 된다는 뜻으로 랑미라고 하여 합부로 랑미하지 말고 절약하라라는것을 이르는 말

가을뚝구기 같은 소리

칠 안된 때에 우는 벼꼭새소리 같다는 뜻으로 서 믿을수 없는 헛소문을 이르는 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댈다

가을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누구나 몹시 바빠 돌아간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에 무풍지가 길면 겨울에 추다

가을에 무풍의 밀뿌리가 길게 내리뻗으면 그해 겨울은 반드시 추다는 뜻으로서 농민들의 생활체험에서 생긴 말

가을과 관천할 속담

가을과 관천할 속담

부항로법의 우점

면역계통의 기능을 제고한다.

부항로법은 현대약들의 약리학적작용을 2배로 강화하고 많은 질병을 조제하는 물질들을 피속에서 제거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만성아픔을 완화시킨다.

비루스와 세균성질염으로부터의 인체보호능력을 개선한다.

부항로법에 의한 치료시 세로토닌, 도파민, 엔드로

사화

군장산과 로적봉 (4)

잠시후 안내하는 젊은이가 문을 열고 머리를 틀어밀며 조화가 끝났으니 어서 나오라고 하였다.

럼탐군이 밖으로 나오자 마침 다락에서 아침조회를 끝낸 장수수십명이 무장한 군인들이 좌우에 쭉 늘어선 총계를 내려오고있었다. 모두 하나와 같이 꼴꼴하였다.

럼탐군은 젊은이의 뒤를 따라 대장군이 거처하는 루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대장군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앉았다.

《분부대로 《장단사람》을 모셔왔습니다.》

《장단사람》은 자기를 럼탐군으로 의심할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루각우에는 전복을 입은 대장군이 흰수염발을 날리며 서있었다.

《가축을 다 잃은 그대가 왜죽을 리하고 여기에 찾아왔으니 그 뜻이 가늠하다. 이제 로적거리아래에 가면 나무를 베는 농부들이 있을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나무를 베는 일로 군사들을 도우라.》

그 말을 들은 럼탐군은 일이 뜻대로 된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로적거리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싶어했는데 그아래에서 나무를 베게 하더니!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소인은 저의 가족을 무참히 죽인 왜놈들과 결판만 짓고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도 대장군의 기상은 추상같았다.

《이안에서는 누구나 군물에 복종해야 한다. 딴 말을 말고 시키는대로 하여라.》 하며 럼탐군을 《에, 에》 하며 황급히 머리를 조아였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 가 살모에 와서 15년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풍습을 익힌것이 헛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럼탐군은 총계를 내리면서 산물짜기를 두루 살펴보고 있었다. 아침을 짓고난 후이라 사방에 연기가 자욱했다. 아

람이 오늘 씨름에서 이겨 큰 황소를 차지했으면 하지!

연금이라는 처녀는 필쩍 뛰며 《앤 정말...》 하고 물음 확 끼었다. 그러는 것을 기다리기도 한듯 갑자기 처녀들은 물끼없이 싱갱이질을 하면서 까르르 웃어댔다.

럼탐군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묻는듯 한 눈길을 돌렸다. 그것을 알아차린 눈치빠

젊은이는 웃으며 말하기를 바로 오늘 그네뫼기와 씨름경기 등 각종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들에서 이기게 되면 큰 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씨름을 하여 일등한 사람에게는 제일 큰 황

소를 상으로 준다고 하면서 한번 해볼 마음이 있으면 씨름경기에 나가보라고까지 했다. 그런즉 이곳에는 군사가 많고 식량도 넉넉하며 군물도 엄하고 군사들의 사기도 높은것이 분명하였다.

젊은이는 히죽 웃고 손을 들어 저기를 보라고 가리켰다. 그를 바라보니 수많은 군사들이 활기있게 지나가고 있었다. 경기장소로 가는 행

기때문이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럼탐군은 골짜기에서 군사들이 끝없이 나오는것으로 불수밖에 없었다.

그날밤 럼탐군은 그곳을 몰래 빠져나가 왜진으로 돌아왔다. 이자는 제 진영에 이르러 바쁘게 곧장 피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고 들은것을 낱알이 보고했다. 피수는 이자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중에서도 셀수 없는 군사의 추수며 엄청난 군량에 그가 질투할 수가 없었다. 그도 흰쌀물이 이 강으로 흐르는것을 보았

그 흰쌀물은 사실 석회를 강물에 조금씩 풀어넣은 것이었다. 모든 물이 없는 피수이하 모든 왜장들은 조선군사들이 금시 쳐들어올 것같이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왜장들은 곧 군장산을 공격할 생각을 버리고 골짜기 뒤편에서 도망쳤다.

그때부터 이곳 사람들은 의병들이 진을 쳤던 산을 군사들과 장수들이 지켜싸운 산이라 하여 군장산이라 하고 왜장들을 놀래울만큼 거창한 노래를 엮었던 로적거리부우리를 로적봉이라 하였으며 왜군이 패하여 도망간 그 벌을 망가대벌이라고 불렀다.

(끝)

조들은 일을 하다가도 철학이던 발머리나 잔디밭, 강가나 바다가의 모래리에서 씨름을 즐겨하였으며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때에는 경기 좋은 장소에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다같이 모여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씨름승부를 겨루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의 그림 《씨름》에도 온 동네가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즐거운 씨름장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듯 한 화폭으로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조선씨름이 때와 장소, 시간에 구애없이 진행된 대중적인 민속체육경기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기 위한 힘과 지혜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조선씨름은 일하다 철참에도 할수 있고 경기과정에 몸이 상하지 않을 장소이면 그 어디 서나 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단의 한 부위라도 땅에 닿으면 경기의 승패가 즉시 결정되게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지루감을 주지 않는다.

기술수법들이 매우 다양하며 동작의 폭이 크고 시원스런 것은 조선씨름의 중요한 특징



김홍도의 그림 《씨름》

역사가 오랜 조선씨름

조선씨름은 두사람이 다리에 긴 살바나 허리에 맨 띠를 서로 잡고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민속체육종목의 하나이다.

씨름이란 말은 《겨루다》, 《다투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말인 《힐후다》로부터 유래된것이다. 즉 《힐후다》가 명사화된 《힐후다》로써 씨름을 내리오는 과정에 《실후》→《실음》→《시름》 등으로 말소리변화를 일으켜 지금의 《씨름》으로 고착되었다고 한다.

긴장한 체력과 투지, 슬기와 지혜를 키워주는 조선씨름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근면한 노동과정에서 창조되고 발전되어 왔다.

창천1호무덤과 씨름무덤 등 고구려시기의 무덤벽화들에는 몸이 장대한 두 사람이 살바를 단단히 틀어잡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는 장면이 묘사되어있는데 이것은 씨름이 세나라시기에 벌써 대중화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록에 의하면 왕의 호위 무사도 씨름을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으며 고려시에는 어느 한 왕이 직접 씨름을 하는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였다고 한다.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옛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선

조들은 일을 하다가도 철학이던 발머리나 잔디밭, 강가나 바다가의 모래리에서 씨름을 즐겨하였으며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때에는 경기 좋은 장소에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다같이 모여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씨름승부를 겨루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의 그림 《씨름》에도 온 동네가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즐거운 씨름장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듯 한 화폭으로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조선씨름이 때와 장소, 시간에 구애없이 진행된 대중적인 민속체육경기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기 위한 힘과 지혜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조선씨름은 일하다 철참에도 할수 있고 경기과정에 몸이 상하지 않을 장소이면 그 어디 서나 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단의 한 부위라도 땅에 닿으면 경기의 승패가 즉시 결정되게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지루감을 주지 않는다.

기술수법들이 매우 다양하며 동작의 폭이 크고 시원스런 것은 조선씨름의 중요한 특징

조들은 일을 하다가도 철학이던 발머리나 잔디밭, 강가나 바다가의 모래리에서 씨름을 즐겨하였으며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때에는 경기 좋은 장소에 어른, 아이 할 것없이 다같이 모여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씨름승부를 겨루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의 그림 《씨름》에도 온 동네가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는 즐거운 씨름장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듯 한 화폭으로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조선씨름이 때와 장소, 시간에 구애없이 진행된 대중적인 민속체육경기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기 위한 힘과 지혜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조선씨름은 일하다 철참에도 할수 있고 경기과정에 몸이 상하지 않을 장소이면 그 어디 서나 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단의 한 부위라도 땅에 닿으면 경기의 승패가 즉시 결정되게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지루감을 주지 않는다.

기술수법들이 매우 다양하며 동작의 폭이 크고 시원스런 것은 조선씨름의 중요한 특징

일찌기 발전한 고구려의 의학기술

고구려사람들은 금, 은, 동, 철을 비롯한 금속들을 녹여 여러가지 침대를 만들어 리용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약초와 약재들을 병치로에 널리 리용하였다고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기까지 하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발견하여 병치료와 장생불로의 명약으로 써온 고구려사람들은 인삼외에도 오미자, 죽두리풀, 당귀, 궁궁이, 만

고구려사람들은 높은 의학기술을 가진것으로 하여 당시 동방의 여러 나라에 당비되어 그 나라 왕을 비롯한 고위층 인물들을 치료해주었다.

일본의 옛 역사책에는 459년에 일본에 초빙되어간 고구려사 마덕배 그곳에서 의학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그의 저술인 헤일, 해암등도 일본의학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사람들이 창조한 뛰어난 의학기술의 밀천으로 우리 선조들은 1445년 세계최초의 의학대백과사전인 《의방유취》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은 높은 의학기술을 가진것으로 하여 당시 동방의 여러 나라에 당비되어 그 나라 왕을 비롯한 고위층 인물들을 치료해주었다.

일본의 옛 역사책에는 459년에 일본에 초빙되어간 고구려사 마덕배 그곳에서 의학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그의 저술인 헤일, 해암등도 일본의학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사람들이 창조한 뛰어난 의학기술의 밀천으로 우리 선조들은 1445년 세계최초의 의학대백과사전인 《의방유취》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지명과 그 유래

고려의 도읍 개성

개성은 고대 고조선영역에 속해있었다. 고구려때에는 행정단위의 이름인 부소강, 동비홀로 불리웠으며 후기신라때에 이르러 동비홀이 개성군으로 개편되면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개성은 예로부터 인삼재배로 유명하였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개성에는 남대문, 만월대, 선죽교, 성관판, 경효랑, 룡, 철성대, 관음사, 표충비, 송양서원을 비롯한 유적이 많다.

박연폭포의 박연이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나왔다고 한다.

옛날에 박연사가 이 폭포에 놀러왔다. 아름다운 경

치에 도취되어 있던 그는 폭포밑에서 살고있던 룡녀에게 홀려 그 녀자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진사의 어머니는 아이를 돌아오지 않자 성군으로 개편되면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개성은 예로부터 인삼재배로 유명하였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개성에는 남대문, 만월대, 선죽교, 성관판, 경효랑, 룡, 철성대, 관음사, 표충비, 송양서원을 비롯한 유적이 많다.

박연폭포의 박연이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나왔다고 한다.

옛날에 박연사가 이 폭포에 놀러왔다. 아름다운 경

개성은 고대 고조선영역에 속해있었다. 고구려때에는 행정단위의 이름인 부소강, 동비홀로 불리웠으며 후기신라때에 이르러 동비홀이 개성군으로 개편되면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개성은 예로부터 인삼재배로 유명하였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개성에는 남대문, 만월대, 선죽교, 성관판, 경효랑, 룡, 철성대, 관음사, 표충비, 송양서원을 비롯한 유적이 많다.

박연폭포의 박연이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나왔다고 한다.

옛날에 박연사가 이 폭포에 놀러왔다. 아름다운 경

음모

신랑의 노래 연습

첫날밤이었다.

신부: 《우리 고을풍속에 혼인을 하면 그 이튿날에는 동리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때 신랑에게 노래를 시키니 부디 노래를 잘 불러 육을 보지 마세요.》

신랑: 《난 노래하는것은 고사하고 노래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을가?》

신부: 《그럼 내가 배워줄테니 그대로 따라하세요. 《술있는 푸르르...》》

신랑: 《매우 높고 석힘찬 목소리로》《술있는 푸르르...》

신부: 《우리 고을풍속에 혼인을 하면 그 이튿날에는 동리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때 신랑에게 노래를 시키니 부디 노래를 잘 불러 육을 보지 마세요.》

신랑: 《난 노래하는것은 고사하고 노래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을가?》

신부: 《그럼 내가 배워줄테니 그대로 따라하세요. 《술있는 푸르르...》》

신랑: 《매우 높고 석힘찬 목소리로》《술있는 푸르르...》

신부: 《우리 고을풍속에 혼인을 하면 그 이튿날에는 동리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합니다. 그때 신랑에게 노래를 시키니 부디 노래를 잘 불러 육을 보지 마세요.》

신랑: 《난 노래하는것은 고사하고 노래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을가?》

신부: 《그럼 내가 배워줄테니 그대로 따라하세요. 《술있는 푸르르...》》

신랑: 《매우 높고 석힘찬 목소리로》《술있는 푸르르...》